

E1, 국제상사 8550억원에 인수

유상증자 4501억원에 회사채 인수 4049억원 ... LPG 탈피 다변화

LPG 수입기업 E1이 5월26일 국제상사 인수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인수대금은 8550억9500만원으로 4501억원은 유상증자(9002만주에 주당 5000원), 4049억9500만원은 회사채 인수 방식을 통해 납입할 예정이다.

E1은 지분을 74.1%의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대규모 인수자금을 사내 유보자금과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1과 국제상사는 국제상사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4월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E1은 그동안 국제상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3주간의 정밀실사를 거쳐 5월26일 최종계약을 맺었다.

E1은 국제상사 인수를 통해 LPG 중심의 단일 수익모델에서 탈피해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소비재 분야에 진출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모델과 관련해서는 국제상사의 프로스펙스 브랜드를 재창조해 토털 스포츠레저 분야 1위 브랜드로 키워 나갈 방침이다.

용산 국제빌딩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가기로 했다. 구자용 E1 사장은 “국제빌딩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용산지역 랜드마크 빌딩으로 탈바꿈시켜 이익창출 능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편, 국제상사의 기존 최대주주인 이랜드개발은 4월 창원지법이 E1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뒤 제3자 매각작업을 중단해 달라며 창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나, E1은 자체적으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인수 작업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학저널 2006/05/29>